



선소대교 야경

진남관 미디어아트

용천 장도 다리

여사만 갯벌

여수 도심 전역 ‘체류형 관광 전환’ 속도낸다

시, 6개 특화 권역 ‘융복합 관광벨트’ 구축 계획 2030년까지 휴양·체험·문화 거점화…체류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 관광정책이 원도심과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전역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선 9기 관광정책의 핵심으로 지역을 6개 특화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의 특성을 살린 융복합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6개 권역은 엑스포권, 이순신광장권, 용천~소호권, 국동항권, 화양~일레븐브릿지권, 돌산권이다.

먼저 시는 2030년까지 각 권역을 휴양·체험·문화 중심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광객의 평균 체류일을 현재 1.8일에서 3.2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

웠다. 엑스포권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크루즈와 MICE 산업을 연계한다.

국제해양레저관광복합센터와 2만석 규모의 복합 돛구장 등의 사업을 통해 국제회의와 해양관광이 결합된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전라좌수영 동헌, 석보 복원, 진남관 미디어아트, 선소테마영상관 상설 전시 등을 추진하고 진남관과 고소대, 천사벽화마을 등을 연결하는 ‘이순신 로드’에 여수 10미

등 지역 음식 콘텐츠를 결합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개발한다.

예율마루와 선소테마정원, 친수공원, 장도, 소호대교 등을 연결하는 관광 동선을 조성하고 소호동동다리 인근 해상에는 1000대 규모의 드론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드론라이트쇼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국동 수협 냉동공장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와 담머리 조개해변~남산을 잇는 야간 경관 등을 통해 미식과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강화한다.

화양~일레븐브릿지권은 섬과 해양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웰니스 관광 거

점으로 개발한다. 뷰터·스파 등 휴양 콘텐츠를 연계해 도심 관광과 차별화된 장기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돌산권에는 기존 오션뷰 카페와 예술랜드, 집라인 등 체험시설에 빛섬 파크 등 신규 사업을 더해 휴양과 체험을 결합한 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한 스포츠·레저 관광 콘텐츠도 확대한다.

해양과 섬 지형을 활용한 트레일런, 요트, 피싱 등 지역 특화 레저·스포츠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규모 전지훈련과 체육행

사 유치에도 나선다. 특히 2028년부터 3박 이상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관광 패키지와 맞춤형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2030년 이후에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영학 시장은 “여수가 지닌 자연경관과 관광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해 방문객이 하루 더 머물며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최근 ‘영광읍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광읍 구시가지 상권 되살리기 본격화 군, 상권 실태·이용행태 분석…12월 최종안 확정

침체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읍 구시가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영광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읍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구시가지 상권 회복을 위한 활성화 방향과 실행과제가 논의됐다.

이번 용역은 영광읍 구시가지의 상권 현황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간보고에서는 상권 실태조사와 이용행태 분석을 비롯해 상권별 여건에 따른 대응방안, 구시가지 상권 활

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방향 등이 제시됐다.

특히 단순히 사업을 나열하기보다 지역 특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군의 이번 용역은 기존의 개별 상권 지원을 구시가지 전체의 활성화 전략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광군은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해 내용을 보완한 뒤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시가지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활력 있는 구시가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밑그림 구체화

시, 과기부 주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체험·교육 거점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의 건축과 전시,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며 미래 에너지 체험 및 교육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과기부가 주관하는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과기부 관계자와 용역 추진단, 에너지·과학 분야 전문가 등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문과학관의 건축, 전시, 운영 종합계획안을 중심으로 전시 방향과 핵심 주제, 공간 배치,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과기부가 주관해 추진 중이며, 과학관 건립과 전시·운영계획을 비롯해 경제성 분석과 건축기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을 통해 기존 산업, 연구, 교육 인프라에 과학문화 기능을 더하고 에너지에 대한 시민과 미래세대의 이해를 높이는 체험·교육 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문과학관을 단순히 전시물을 관람하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에너지의 원리와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탐구하며 과학적 상상력과 진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참여형 과학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우리나라의 과학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조감도

기술 정책을 이끄는 과기부가 주관해 건축과 전시, 운영 방향을 함께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과학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영암 청년 공직자들 국회 방문 공직 자세·정책 실행 등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청년 공직자들이 국회를 찾아 공직자의 자세와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나눴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청년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주니어보드’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과 혁신소통 간담회를 갖고 분회 의장과 국회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청년 공직자들이 국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현장을 살펴보고, 국가 정책이 지역행정과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서삼석 의원은 공익을 우선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넓은 시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하늘과 땅, 바다처럼 넓은 시야”로 행정을 바라보고, 창의적인 사고와 꾸준한 자기개발로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가길 당부했다.

혁신주니어보드 단원들은 정책현장에서 실행하며 겪는 어려움과 고민도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정책의 방향이 맞다면 현장 여건을 살펴봐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정책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 달라고 조언했다.

간담회를 마친 단원들은 국회 분회 의장과 국회박물관을 둘러보며 입법과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봤다.

박영하 영암군 기획예산실장은 “청년 공직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정책이 만들어지고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폭넓게 바라보는 자리였다”며 “혁신주니어보드에서 나온 새로운 생각과 제안이 실제 조직문화와 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순천, 우수·오수 분류화 지역 단계적 확대 2029년까지 2071가구 우·오수 분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순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간 하수도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정비하고 확충할지 정하는 하수도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5년마다 인구 변화와 도시개발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한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9년까지 국비 643억원과 시비 441억원 등 총 1084억원을 투입해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에 오수관로 71.9km를 새로 설치해 2071가구의 우수와 오수를 분리할 계획이다.

우·오수 분류화는 빗물과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각각 별도의 관로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빗물과 오수가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을 줄여 하수 역류와 도로·주변 주변 침수 위

험을 낮추고, 생활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재 해동·황전·월등면 일원에서는 공사 진행 중이며, 송광·외서면과 202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서면·삼산동 일부 지역은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7년에는 해룡면 성산마을 등 5개 마을을 신규사업으로 건의해 사업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와 위생 불만이 개선되고,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의 공공수역 유입을 차단해 동천, 순천만 등 주요 수계의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